



NJ KOREAN CHO WON LUTHERAN CHURCH
9 E. HOMESTE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뉴저지 한인 루터 교회
www.palparkchurch.org / njklchurch@gmail.com
201-852-3600

제목 Theme: 겸손한 사람 Humble Person

본문 Scriptures: 누가복음 St. Luke 14:1-11 절

1.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It happened that when He went into the house of one of the leaders of the Pharisees on the Sabbath to eat bread, they were watching Him closely
2.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And there in front of Him was a man suffering from dropsy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And Jesus answered and spoke to the lawyers and Pharisees, saying, "Is it lawful to heal on the Sabbath, or not?"
4.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But they kept silent. And He took hold of him and healed him, and sent him away
5.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And He said to them, "Which one of you will have a son or an ox fall into a well, and will not immediately pull him out on a Sabbath day?"
6.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And they could make no reply to this
7.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And He began speaking a parable to the invited guests when He noticed how they had been picking out the places of honor at the table, saying to them
8.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When you are invited by someone to a wedding feast, do not take the place of honor, for someone more distinguished than you may have been invited by him
9.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 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and he who invited you both will come and say to you, 'Give your place to this man,' and then in disgrace you proceed to occupy the last place
10.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 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But when you are invited, go and recline at the last place, so that when the one who has invited you comes, he may say to you, 'Friend, move up higher'; then you will have honor in the sight of all who are at the table with you
11.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For everyone who exalts himself will be humbled, and he who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



NJ KOREAN CHO WON LUTHERAN CHURCH
9 E. HOMESTE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뉴저지 한인 루터 교회
www.palparkchruch.org / njklchurch@gmail.com
201-852-3600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잠언서를 통하여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잠언 26:6 절)고 하신 것은 겸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Our Lord Jehovah God speaks of humility when He says in the book of Proverbs, “Do not exalt yourself before the king, nor stand in the place of great men” (Proverbs 26:6).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에베소서 4:2-4 절)고 겸손을 말씀하시면서 그 겸손을 지키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In his letter to the church in Ephesus, the Apostle Paul also spoke of humility, saying, “Be all lowliness and gentleness, with patience, bearing with one another in love. Be diligent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in the bond of peace” (Ephesians 4:2-4). He also said that in order to maintain that humility, one must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속에서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그것을 지키는 믿음과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In the words our Lord wants to speak to us today, He also tells us that we must have a humble heart before Him, have faith to keep it, and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to fulfill that faith.

본문에서는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를 초대받아 가셨는데 그곳에는 손을 펼 수 없는 장애인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1-2 절) In the text, on the Sabbath, our Lord Jesus was invited to a Pharisee's house for dinner. There, a man with a disability who could not stretch out his hand was present, and many people were watching him (verses 1-2).

이 내용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을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이 초대하는 곳에도 들어가 떡을 잡수려고 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편견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rom this passage, we can see that our Jesus not only met with tax collectors and prostitutes and ate with them, but also went to the places where the Pharisees, who hated them, invited him to eat bread with them. This shows that he loved all people equally and did not hold any prejudice.

우리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집에 장애인이 있었는데 그 장애인을 보시고 고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Our Lord Jesus was invited to a house where there was a disabled person. When he saw that disabled person, he wanted to heal him.

불쌍한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When we see a poor person, we can see that our heart of compassion is the heart of Jesus.

그런데 유대인들이 엄격하게 지키는 안식일이었는데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어떤 일이든지 하지 못하게 가르쳤습니다 However, it was the Sabbath that the Jews strictly observed, and the Pharisees and scribes, who could be considered religious leaders at the time, taught that no work should be done on the Sabbath.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사라고 말하는 서기관들과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한가?”(3 절) 라고 질문했습니다 At that time, our



NJ KOREAN CHO WON LUTHERAN CHURCH
9 E. HOMESTE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뉴저지 한인 루터 교회
www.palparkchurch.org / njklchurch@gmail.com
201-852-3600

Jesus asked the scribes, who were called lawyers, and the Pharisees, who could be called religious leaders, “Is it lawful to heal on the Sabbath?” (verse 3)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질문을 먼저 하고 결정한 후에 장애인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장애인을 고쳐 주시고 그 후에 그들에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Our Jesus did not ask questions first, make a decision, and then heal the disabled person. Our Jesus healed the disabled person first and then asked them questions.

우리 예수님의 의도는 사람들의 결정에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 이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방식이었습니다 Our Lord Jesus' intention was not to determine God's work based on people's decisions, but to teach people God's will after doing God's work.

우리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이 잠잠했다”(4 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It is recorded that in response to Jesus' question, "they were silent" (verse 4).

왜냐하면 그들이 말할 때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들은 안식일이라도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Because when they say that no work is to be done on the Sabbath, they themselves do what they need to do on the Sabbath.

그들이 잠잠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그 장애인을 이미 고쳐 주셨습니다 While they were silent, our Jesus had already healed the disabled man.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의 법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And our Jesus showed them that the laws of our God are more important than the laws of the elders they had made.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그들 즉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5 절) 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은 어떤 대답도 하지 못했다(6 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When our Jesus asked them, the religious leaders, “If one of you had a son or an ox that fell into a well, wouldn't you immediately pull them out on the Sabbath day?” (v. 5), they were unable to give an answer (v. 6).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진실을 정직하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Because our Jesus spoke the truth honestly.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겸손하지 못했고 늘 자신들이 우월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The religious leaders of that time were not humble toward God and people, and they always lived as if they were superior and deserved special treatment.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과 사람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겸손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7 절) So, our Lord Jesus gave us an example of how important humility is between God and people, and between people (verse 7).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높은 위치로 착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7 절), 만약 초청을 받을 경우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8 절)고 하셨는데 만약 초청하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을



NJ KOREAN CHO WON LUTHERAN CHURCH
9 E. HOMESTE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뉴저지 한인 루터 교회
www.palparkchurch.org / njklchurch@gmail.com
201-852-3600

초청했을 경우에 미리 앉아 있던 사람을 불러 그 자리를 내어주라고 하면 오히려 부끄러워 가장 낮은 자리로 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9 절) Our Jesus said that the person who is invited should not mistake his position for the highest position (verse 7), and if he is invited, he should not sit in the highest position (verse 8). If the person who invited the guest invited a person of higher rank and asked the person who was already sitting to give up his seat, he would feel ashamed and go to the lowest position (verse 9).

그러므로 청함을 받을 경우에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면 초청하는 자가 와서 “올라와 앉으라고 할 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다”(10 절)는 내용입니다 Therefore, when you are invited, if you sit humbly in the lowest place, when the host comes and says, “Come up and sit down,” you will have honor in the presence of all who are reclining at the table with you (verse 10).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This is what our Lord tells his disciples: those who are always humble before God will receive praise and glory from God.

우리 주님께서 제자와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11 절)고 겸손한 신앙생활을 강조하셨습니다 Our Lord emphasized the humble life of faith for us, the disciples and saints, saying, “Everyone who exalts himself will be humbled, and he who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 (verse 11).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에서도 영적으로 겸손하지 못한 종교적 우월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예수님은 공격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Even during the public ministry of our Lord Jesus, he was attacked and suffered hardships by the Pharisees and scribes, who could be called religious supremacists who were not spiritually humble.

이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This brought about a terrible result, as it did not bring glory to our Father God and they were not saved.

지금 이 시대에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신앙 생활 속에서 겸손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This is a thought-provoking passage about the church leaders of this age who, even in this day and age, are unable to glorify God because they lack humility in their spiritual faith and life with God.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Dear Saints of Faith!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Our Lord has a word for us today.

먼저, 주님 앞에 겸손한 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2 절) First, those who are humble before the Lord must be concerned about those who need our God's love (verse 2).



NJ KOREAN CHO WON LUTHERAN CHURCH
9 E. HOMESTE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뉴저지 한인 루터 교회
www.palparkchurch.org / njklchurch@gmail.com
201-852-3600

- 1) (여리고의 맹인)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누가복음 18:41 절)
(The blind man of Jericho)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Luke 18:41)
- 2)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바울)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으리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고린도전서 4:20-21 절)
(Apostle Paul to the Corinthian Church) "For the kingdom of God does not consist in word but in power. What do you want? Shall I come to you with a rod, or with love and gentleness?" (1 Corinthians 4:20-21)
- 3) (나병환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마태복음 8:3 절). (Leper) “I am willing; be cleansed.”
Immediately his leprosy was cleansed” (Matthew 8:3).

둘째, 주님 앞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난한 자와 낮은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10 절) Second, those who are humble before the Lord must live with the heart of the poor and lowly before God and people (verse 10).

- 1)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신명기 15:7 절 -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라” Caring for the poor is God's heart: Deuteronomy 15:7 - "If there is a poor man among you, one of your brothers, in any of your towns in your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do not be hardhearted or tight-fisted toward your poor brother."
- 2)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돌봐 주십니다: 이사야 66:2 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충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라” The Lord cares for the poor in spirit: Isaiah 66:2, "For my hand has made all these things," declares the Lord. "They came into being. This is the one to whom I will look: the humble in spirit and the humble in spirit, who tremble at my word."
- 3)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3-4,6 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From the Sermon on the Mount) Matthew 5:3-4,6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NJ KOREAN CHO WON LUTHERAN CHURCH
9 E. HOMESTE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뉴저지 한인 루터 교회
www.palparkchruch.org / njklchurch@gmail.com
201-852-3600

they will be comforted.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will be filled.”

셋째, 주님 앞에 겸손한 자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11 절) Third, those who are humble before the Lord must live their entire lives as evangelists for the glory of God (verse 11).

- 1)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31 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Humans must live humbly before God for the glory of God: 1 Corinthians 10:31 “So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 2) 하나님께 겸손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 뜻의 핵심은 복음 전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14 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Living humbly before God is fulfilling God's will, and the core of that will is evangelism: 2 Thessalonians 2:14, "To this end he called you through our gospel, so that you may obtain the glory of our Lord Jesus Christ."
- 3)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성도는 전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직접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44 절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For a disciple of Jesus, evangelism is about humbly obeying God, and Jesus himself set an example: Luke 4:44 “(Jesus) was preaching in the synagogues of Galilee.”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May the grace, love, and blessings of our Lord Jesus Christ be upon the holy saints who live in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to fulfill the will of God the Father. In the name of Jesus, I pray. Amen.